

핵실험장 갱도 폭발→입구 폐쇄→지상 시설 철수→완전 폐기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어떻게 진행되나

총 4개 갱도 중 3·4번 완전 폐기 여부 주목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가 24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공보에서 “핵실험장 폐기는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봉쇄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실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실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런 설명에 비춰 보면 일단 폭약을 사용해 모든 갱도를 무너뜨리고 입구를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 시설을 철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인근에 머물던 인력도 전원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핵실험장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등 북한의 사전 준비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핵시설 봉쇄화 합의(10·3합의)에 따른 조치로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시설인 냉각탑을 폭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 핵개발의 상징인 냉각탑이 회색 연기로 둘러싸이며 순식간에 붕괴하던 모습이 시선을 끌었다.

현재 풍계리에는 모두 4개의 갱도가 있으며, 1차 핵실험에 사용하고 오염으로 폐쇄된 1번 갱도와 2~6차 핵실험에 사용한 2번 갱도를 제외하고 3번과 4번 갱도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이번 핵실험장 폐기행사에서 3, 4번 갱도의 완전한 폐기 여부가 주목된다.

이준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4개 갱도에 폭약을 삽입한 뒤 기록시켜 내려 앉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1, 2번 갱도는 입구만 폭발하면 되고 3, 4번은 사용하지 않았으니 내부까지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3, 4번 갱도를 어느 정도로 폭발할지가 관건”이라며 “전망대가 3번 갱도 위쪽에 설치돼 있는데 (전망대에 닿을) 영향을 고려하면 대량으로 폭발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구소련 일원이었던 카자흐스탄도 1990년대 ‘세미팔라틴스크’ 핵무기 실험장을 폐쇄할 당시 실험장으로 쓰기 위해 파놓은 터널들을 폭약을 사용해 폭발했다. 미국과 카자흐스탄 등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 의해 총 181개 터널이 폐쇄됐고, 13개의 시추공들이 파괴된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은 지금은 카자흐 국립원자력센터의 관할 하에 민간 교육 활동 등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때 폭발 방식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을 활용한 핵실험장 폐기 방식도 거론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민간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가 23일 촬영한 위성사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풍계리에 세계 이목 집중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전략적 노선을 전환하고 국제사회에 밝힌 비핵화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을 중요하고 경제건설에 중점을 둔다는 새 노선을 채택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는 데 동의했으며, 미국과도 다음 달 12일 북미정상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교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이 당 전원회의 당시 병진노선 종료와 관련된 결정서에 명시한 사항으로, 사실상 북한의 노선 전환을 ‘실천’하는 성격이 있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실무계획을 밝힌 이달 12일 외무성 공보에서도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북부 핵실험장 폐기”라고 표현

하는 등 이것이 전략노선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북미 간에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핵화 조치의 ‘분류’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갱도가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을 외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폐기함으로써, 비핵화의 상징적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 준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해 온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보상조치 없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먼저 실행에 옮기려 하는 데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김동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무 보상도 없이 선제적 조치를 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뿐 아니라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주말 ‘분수령’

실무진 싱가포르서 접촉... ‘세기의 담판’ 기싸움 치열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이번 주말 판교를 날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 시한을 다음 주로 못 박았다. 북한의 ‘회담 재고려’ 압력에 ‘취소 또는 연기’로 응수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무엇이 되든, 우리는 싱가포르(회담)에 관해 다음 주말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주말로 계획된 양국 실무 접촉의 결과를 보고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할지, 아니면 연기 또는 취소로 선회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북한 대표단들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대표단은 회담 의제는 물론 장소, 형식, 인력 및 물자 이동 등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12일 회담 개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이 ‘세기의 담판’을 코앞에 두고 기선 제압을 위한 기 싸움에 들어간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선희 부상은 24일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재고려 하는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측이 정상회담의 판을 뒤엎고 강경 대처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돌아가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재고려” 압력에 “취소 또는 연기”로 응수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무엇이 되든, 우리는 싱가포르(회담)에 관해 다음 주말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주말로 계획된 양국 실무 접촉의 결과를 보고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할지, 아니면 연기 또는 취소로 선회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북한 대표단들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대표단은 회담 의제는 물론 장소, 형식, 인력 및 물자 이동 등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12일 회담 개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이 ‘세기의 담판’을 코앞에 두고 기선 제압을 위한 기 싸움에 들어간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설 66주년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 위해 북과 다시 접촉 검토”

靑 “하라인 통화 시기는 정해진 것 없어”

청와대는 24일 중단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고위급 회담 재개 일정을 북측에 제안했다’라는 질문에 “일정을 제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미 한번 (추진하려다가)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만을 문제 삼고 있어 완전히 판을 엮으려는 의도까지는 아니라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하다.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남북 정상 간 ‘하라인(직통전화)’ 통화가 언제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난 21일 문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 확률을 99.9%라고 언급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소당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텔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텔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